

# 편집후기

◇……'77년 정말 多事多難한 한해였다.

各種事故로 빚은 數 많은 悲報속에서도 우리는 꾸준한 國力伸張을 이룩하여 세계속에 한국을 크게 부각시킨 한해가 되었다.

◇……그 가운데서 大自然과 싸우는 苦鬪속에서 大韓男兒의 굳은 意志를 全世界에 과시하고 귀국 개선한 '77에베레스트 등정대원의 장거는 韓國歷史에 길이남을 不滅의 業績이 아닐 수 없다. 그들의 快舉에 우리는 다시한번 致賀를 하지 않을 수 없다.

◇……'77년을 再整備, 새出發의 해로 삼았던 우리 한국화재보험협회, 한때 호화 빌딩이라는 비난까지 받았던 "防災示範빌딩"을 社屋으로 받은 우리로서는 더욱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되었다.

◇……국내최초의 防災展示場의 설치, 遠隔調整이 가능한 防災센타의 설치, 그리고 건축「스프링클러」

장치, 自動탐지 및 消火設備, 특별피난 계단과 비상용 승강기등의 시설을 갖춘 防災示範빌딩인 "火保빌딩", 이는 「火協」의 자랑일뿐 아니라 우리국민 모두의 소망이 아니었던가!

◇……教科書式的 講義와 理論보다는 직접보고 느낌으로써 화재예방에 보다 實效를 거둘 수 있다는점에서 「防災示範빌딩」의 건립은 새로이 집을 짓거나 소화설비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크게 效果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期待된다.

◇……火災豫防의 科學化, 우리는 새해에도 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.

"화재없는 福祉社會建設", 이는 우리의 目標이며 課題이다.

국민 모두의 참여를 기대해 본다.

火災安全點檢〈年2回刊〉

(通卷9號)

登錄番號 바 520

登錄日字 1973年 10月 11日

〈非賣品〉

發行人 李 養 浩

編輯人 金 雲 淑

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火災保險協會

서울特別市 永登浦區汝矣島洞 1-614

汝矣島 郵遞局 私書函 27號

電話 (8111~20 8121~5  
(782) 8211~9 8157~9